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써족

畲族

Shēzú

편 자 목 이
역 자 김재국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

© 金在国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畲族：朝鲜文 / 牧二编；金在国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3-6

Ⅰ. ①畲… Ⅱ. ①牧… ②金… Ⅲ. ①畲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 ①K288.3-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5987号

畲族
SHE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奇兴彩色广告印刷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53-6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 lnmzcbs.com
淘宝网店：http://lnmz2013. taobao. com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츠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쟈족)　　전산천
정 아(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쫭 족)
왕해연(챵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목 록

제1장 써족의 개황

반호에 관한 전설 /9

제2장 써족의 발원지

형제산에 관한 전설 /19

제3장 써족의 사상관념

쌀 한말을 산합로인에게 드린 이야기 /33
써족이 손님을 접대하는 례절 /35
백정과 금덩어리에 관한 이야기 /37
설돼지를 덮은 이야기 /41

제4장 써족의 생활습관

써족의 복장 /44
써족의 식생활 /46
3월 3일에 오미밥을 먹는 풍습의 유래 /49
써족의 거주생활 /52

제5장　써족의 풍속과 인생례절

정월 초닷새에 새해인사를 하는 풍습의 유래 /55
침판지를 때리는 풍습의 유래 /63
써족의 인생례절 /64

제6장　써족의 민요

꽃꽂이처녀 /71
써족이 령구앞에서 통곡하는 풍습의 유래 /73

제7장　써족의 전통적인 체육

조운룡이 무예를 닦아 묘족군사를 물리치다 /77
해마를 타는 풍습의 유래 /79

제1장 써족의 개황

스스로 산의 손님이라고 자칭하는 써족은 우리 나라 소수민족의 하나이다. 써족은 대부분 복건, 절강, 강서, 광동, 안휘 등 성에 분포되여있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의 대만, 향항과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지역들에도 조금씩 분포되여있다. 써족의 거주지는 대부분 강남의 구릉지역에 있으며 경제구조는 산지농업생산을 위주로 한다. 써족은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기에 대신 한자를 쓰고있다. 2000년에 제5차 전국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써족의 인구는 709,592명이다.

써족의 써(畲)자에는 "땅을 개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써족은 스스로 "산합"(山哈) 혹은 "산달"(山达)이라고 자칭하는데 그 뜻인즉 산속에서 사는 손님이라는 뜻이다.

써족은 대부분 자신들의 시조가 반호(盘瓠)라고 믿고있는데 아래의 이야기가 바로 반호에 관한 전설이다.

반호에 관한 전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머나먼 옛날의 어느 하루 금룡(金龙) 한마리가 동해에서 하늘 높이 치솟아 천만갈래의 금빛을 타고 곧바로 황성(皇城)을 향했다고 한다. 황성에 다달은후 금룡은 한줄기의 푸른 연기로 변해 나이가 지숙한 녀자의 집안에 들어갔다. 이때 녀자는 호젓이 잠을 자고있었다. 잠에서 깨여난 뒤 녀인은 자신의 왼쪽 귀가 크게 부어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였고 참을수 없는 진통을 느끼게 되였다. 그래서 녀인은 의사를 청해 병을 보이였다.

의사는 녀인의 귀를 칼로 수술하여 그속에 들어있는 고름을 짜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고름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쌀알만큼 큰 알이 나올줄이야. 녀인은 그 알을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고 그우에 박잎으로 덮은 다음 다시 광주리에 담았다. 그런데 그릇에 담아놓은 알이 하루에 한치씩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몇달후 몸 길이가 8자, 높이 4자, 머리가 교룡(蛟龙) 비슷하고 몸에 빛갈 고운 털이 자란 룡으로 자라나는것이였다. 녀인은 그 룡에게 반호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당시 마침 이웃나라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범해왔다. 관군은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번마다 패하기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군은 성곽아래까지 쳐들어왔다. 고신제(高辛帝)는 궁여지책으로 방문을 내붙여 누구든 성곽아래에 있는 적군을 물리치기만 한다면 슬하에 있는 예쁜 세 공주중에서 하나를 안해로 삼게 하고 부마로 맞아들이겠다고 승낙했다.

그런데 방문을 내붙인지 며칠이 지나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고신제는 단가마우의 개미처럼 안달아나 침식마저 잃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고신제가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쩔쩔매고있을 때 궁밖에서 누군가 방문을 보고 자원해나섰다는 전갈이 왔다. 고신제는 기뻐하며 어서 그 사람을 궁으로 모셔오라고 큰소리로 명했다.

그런데 위병들의 뒤를 따라 궁으로 들어온자는 사람이 아닌 룡견(龙犬)이라는 한마리 개였다. 고신제가 그것을 보고 실망한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개더러 강대한 적군을 물리치라 하다니! 이 얼마나 천하를 웃기는 일인가. 그런데 룡견을 보내지 않는다면 또 어디에 가서 적군을 물리칠수 있는 장사를 찾아오겠는가?

고신제는 어떻게 생각해도 선뜻 결단을 내릴수 없었다. 나중에 그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룡견에게 물었다. “너 정말 적군을 물리칠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룡견은 갑자기 사람처럼 말문을 열었다. “황제께서 저를 너무 깔보지 마시옵소서. 이래뵈도 소인은 동해 룡구(龙驹)의 화신이옵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사흘안으르 꼭 적군을 깨끗이 몰아내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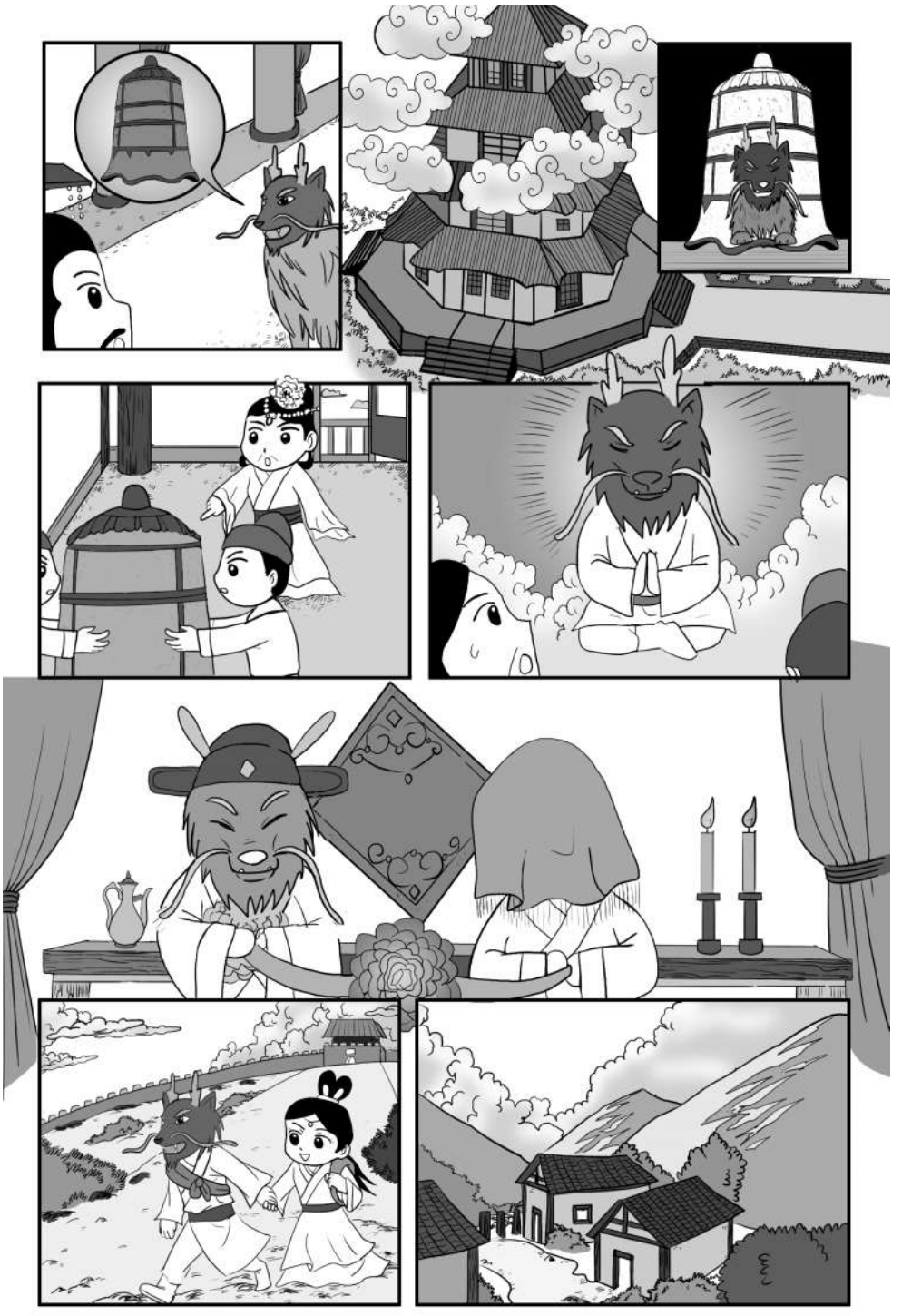
고신제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우유부단하고있을 때 룡견은 어느덧 룡궁을 빠져나가 곧바로 적진을 향해 돌입해들어갔다. 때마침 적군은 승리를 경축하느라 너나없이 들떠있었다. 번(番)왕은 만취하여 휘청거렸고 병장들도 모두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룡견은 주변의 지형을 잘 관찰한 뒤 그날밤 삼경에 번왕의 막사에 잠입하여 번왕이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달려들어 그의 목을 덥석 물었다. 번왕은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목이 끊기고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룡견은 번왕의 수급을 입에 물고 위엄있게 막사를 나섰다. 적군은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하며 황급히 뒤쫓아갔다. 룡견은 적군이 황성안까지 쫓아들어올가봐 몸을 휙 돌려 동해를 향해 내달렸다. 룡견이 동해기슭까지 왔을 때 번왕의 병사들이 거의 쫓아왔다. 이때 룡왕이 하백(河伯), 수관(水官), 새우병사, 게장령들을 파견하여 룡견을 돕도록 했다. 뒤따라 갑자기 해면에 광풍이 크게 몰아치더니 집채같은 파도가 덮쳐와 룡견의 뒤를 쫓던 병사들을 모두 휩쓸어 바다에 처넣었다.

룡견이 궁궐을 떠나간 뒤로 고신제는 줄곧 자기 리해득실에만 골몰해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룡견이 적군을 물리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귀여운 공주를 일개 개에게 시집보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룡견이 번왕의 수급을 물고 위풍당당하게 궁궐에 들어설 때 한편으로는 기뻐서 어찌할바를 모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난감했다.

기왕 룡견이 약속대로 적군을 격퇴한이상 고신제로서도 당연히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꽃같이 예쁘고 옥같이 귀한 공주를 한마리 개에게 시집보낼수 있을가? 고신제가 우유부단하고있을 때 현명한 셋째공주가 궁궐에 들어와 대전앞에 무릎 꿇고 부왕에게 간청했다. “자고로 군주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고 했사옵니다. 만약 부왕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천하를 정복할수 있겠사옵니까? 세상만방이 부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 저는 달갑게 룡견의 안해가 되겠나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고신제는 약속대로 룡견을 부마로 맞아들였다. 룡견은 기쁜 나머지 급히 앞으로 달려가 공주의 치마를 입에 물고 놓지 않았다. 셋째공주가 처음으로 개에게 끌려가자 어딘가 당황스러웠다. 궁궐안에 줄줄이 늘어선 문무백관들은 그 정경을 보고 저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고신제는 그래도 마음이 탐탁치 않아 룡견에게 물었다.

"만약 공주를 너에게 시집보내면 너는 사람모양으로 변할수 있겠느냐?"

그 말에 룡견이 흔연히 대답했다.

"만약 금종으로 소인을 덮고 그안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인 스스로 법술을 하게 한다면 7일 낮과 7일 밤뒤에 소인은 사람모양으로 변할것이옵니다."

그 말을 믿고 고신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황궁에 건물을 짓게 하고 그안에 거대한 금종을 안치했다. 그다음 그 금종으로 룡견을 덮었다.

그런데 황후마마께서 하루빨리 사람모양으로 변한 사위를 보기 위해 매일 건물앞에서 초조히 바장이고있을줄은 누구도 몰랐다. 금종으로 룡견을 덮은지 닷새되던 날 황후마마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시종에게 명하여 금종을 열게 했다. 이때 룡견의 몸은 이미 사람모양으로 변해있었지만 머리부분은 아직 변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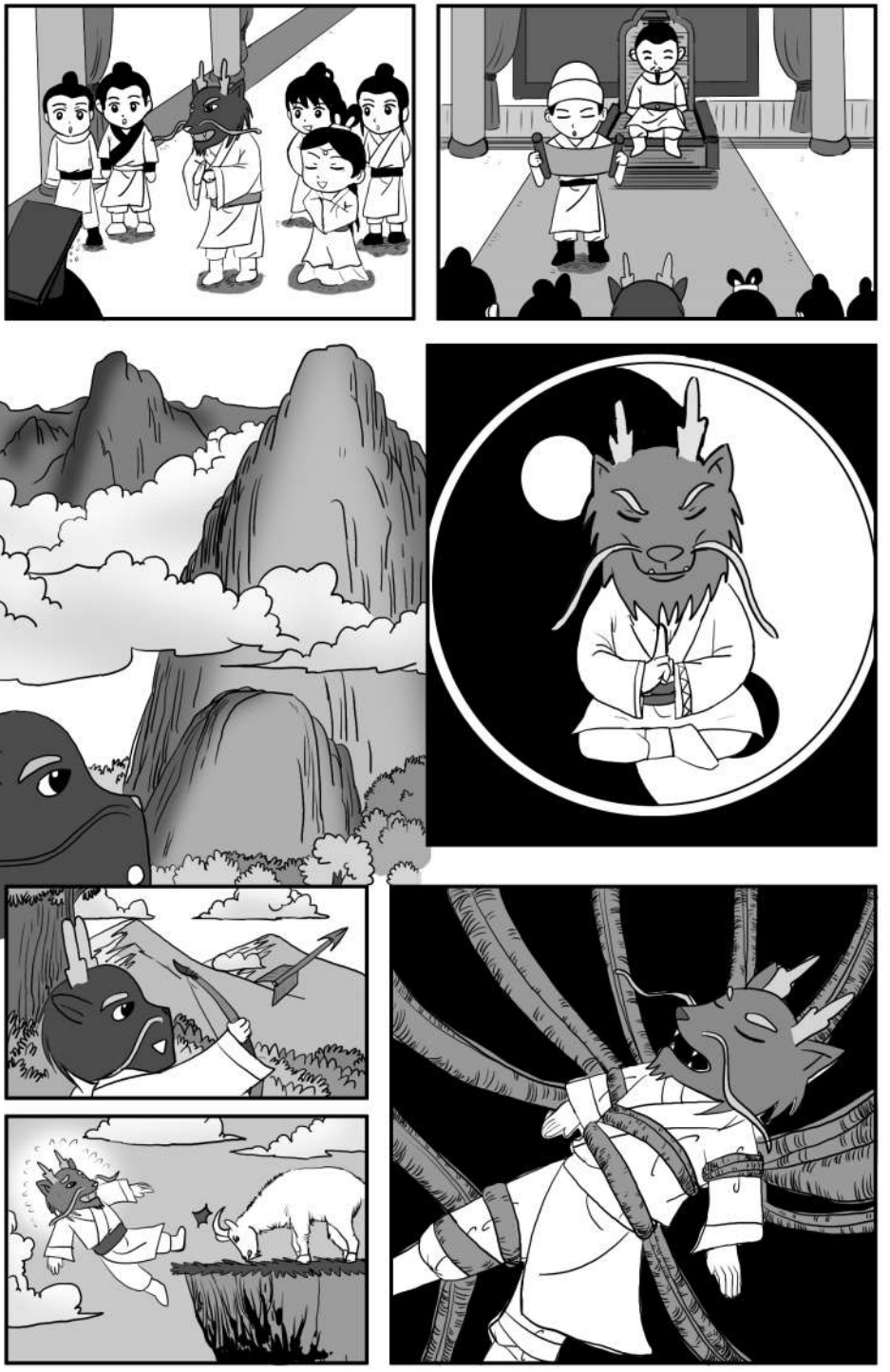
공주는 황후마마께서 돌이킬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한것을 알고 부왕과 황후마마께 말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거늘 소인이 누구를 더 원망하겠사옵니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그르친 일을 더는 돌이킬수 없음을 알고 고신제는 룡견과 딸을 위해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룡견을 부마로 받아들였다.

룡견이 부마로 되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고신제는 그에게 큰 벼슬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룡견은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권세욕과 물욕에만 눈이 어두워 도덕적으로 끝없이 부패하고 타락한것을 보고 그들속에 가담하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귀족이 되고싶지 않았다. 그는 정중히 고신제에게 공주와 함께 조주(潮州)에 있는 봉황산(凤凰山)에 가서 조용히 살고싶다고 진언했다.

사실 고신제도 사위를 오래 궁궐에 두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있던차라 룡견의 간청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리하여 룡견은 공주와 함께 광동 조주경내에 있는 봉황산에 가서 정착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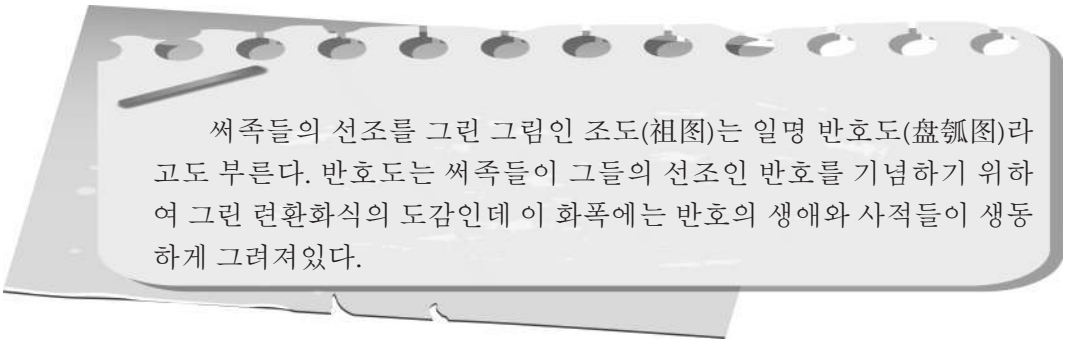
그로부터 20년뒤, 룡견부부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데리고 경성에 돌아와 고신제를 알현하게 되였다. 고신제는 네 아이가 모두 귀엽고 멋지게 생긴것을 보고 네 아이에게 각각 반(盘), 람(蓝), 뢰(雷), 종(钟)이라는 성을 각각 하사했다.

고신제가 그들에게 땅을 주려고 하자 룡견이 나서서 말렸다. "자손들에게 공량을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 하는 밭을 주지 마시고 심산유곡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마을과 3리 정도 떨어져있고 강과 3장 정도 떨어져있는 땅을 주시여 영원히 경작하게 해주시고 군사와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묘지림도 마을과 18리 떨어지게 하고 타인이 침입할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

고신제는 그렇지 않아도 봉황산 밀림속에 땅을 개간할수 있는 인가가 살지 않아 고민하고있던중이였다. 그리하여 룡견의 간청을 선선히 들어주었다. 부마자신이 군왕(郡王)이기때문에 고신제는 그를 고왕(高王)으로 봉했다. 한편 군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성문밖까지 호송하게 했다.

고왕은 마을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강소 진강 구용현(江苏镇江句容县)경내에 있는 모산(茅山)을 거치게 되였다. 그는 모산 도사의 법술이 대단히 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짐을 풀고 법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법술을 다 배우고난 뒤 고왕은 봉황산으로 되돌아갔다.

고왕은 홀로 산에 가서 사냥하기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한번 그는 산양 한마리에 부딪쳐 깊은 산골짜기에 떨어졌다. 마침 골짜기 낭떠러지에 뒤엉켜있던 오래된 덩굴이 락하하는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고왕은 그 덩굴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수가 없었다. 결국 고왕은 그 봉황산 깊은 골짜기 덩굴속에 전신이 휘감겨 죽고말았다. 오늘날까지도 봉황산일대에는 고왕이 살던 산채와 고왕의 사적을 그린 그림이 남아있다.



써족들의 선조를 그린 그림인 조도(祖图)는 일명 반호도(盘瓠图)라고도 부른다. 반호도는 써족들이 그들의 선조인 반호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린 련환화식의 도감인데 이 화폭에는 반호의 생애와 사적들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